

## 책 혹은 출판미래의 예측

21세기를 몇 년 앞두고 인류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불투명하기만 한 앞날에 비전을 만들어주고 있다. 서점가에 쏟아져 나온 '예측서'들을 통해 우리의 장미빛 혹은 우울한 앞날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출판은 미래사회에 어떤 모습을 띠 것인가. 정보사회의 급격한 파도는 '출판'의 앞길에 가장 큰 변수일 듯하다. 이미 예측서들은 대부분 '출판'과 '책'의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다. 최근 나온 《96 미국예측 연감》(김 롱 지음, 안그라픽스)에는 현실 데이터에 근거한 미국 출판업계의 변화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들 내용에서 미국의 출판 현실이 곧 우리 출판계의 현실 혹은 곧 밀어닥칠 변화와 민감하게 맞물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온라인 통신서적 : 도서출판업자들은 서둘러 인터넷의 일부로서 사용이 쉬운 월드와이드 웹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새 분야에 진출하려는 열기는 높지만, 아직까지 이를 통한 이익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서점 또한 판매액 증가와 고객과의 접촉 기회가 증가하리라는 예상에서 웹의 가입이 늘고 있다.

웹은 소비자들에게 제목을 검토해본 후 구체적인 서적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점방에서는 대개 탐색기능을 제공하여 도서 도매업자들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도서모음방에 접근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고 3백만개의 제목까지 탐색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대형서점

96년에 높은 판매고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실용정보서, 비즈니스, 여행, 원예관련서. 몇년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아동물과 컴퓨터 서적이 최대 변화로 꼽힌다.

에 비치된 도서 종류는 5만개 정도에 불과하다.

▶ 대형서점의 경기침체 : 미국의 오래된 출판사들은 대형서점의 성장세가 결국에는 끝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정된 시장에 상품들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빠르면 1996년에 일부서점은 문을 닫고 주요 체인은 사업확대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독서클럽의 침체 : 독서클럽은 최근 이르러 회원 수와 판매액 감소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 이유는 예전의 독서클럽 회원들에게 더욱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대형서점 체인의 확산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몇 년간 독서클럽의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두 개 이상의 독서클럽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 합병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분야의 변화 : 96년 평균 성장률보다 더 높은 판매고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 분야는 실용정보서, 기독교계의 픽션과 논픽션, 비즈니스, 여행, 원예 등에 관한 것이다.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아동물과 컴퓨터 서적이 최대 변화. 컴퓨터 서적은 인터넷과 월드와

이드 웹에 관한 도서의 포화 상태로 판매액이 하락세에 접어들지도 모른다.

▶ 마케팅 영향력 : 베스트셀러들이 대형 도서출판업계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추세를 보인다. 저자에 대한 투자, 매스 미디어를 이용한 캠페인 광고, 저자 탐방, 다른 매체와의 프로그램 연결 등은 이러한 전략의 일부이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만 하면 매상은 눈에 띄게 높아지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에 올리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더 모아지고 있다.

▶ 전자 도서 : 매상이 저조하고, 생산가는 높고 낮은 품질과 사용상의 불편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멀티미디어 타이틀이 보다 실용적인 지침체에 재검토되고 있다. 내년에 출시될 타이틀은 가격이 낮아질 것이며 내용도 더 좋아지고 작동철차도 보다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멀티미디어 제품의 80-90%가 아직은 컴퓨터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 페이지 계산 :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치솟은 종이가격은 도서생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다. 출판업체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법 가운데에는 일부 책들의 길이를 줄인 다거나, 또 낮은 품질의 종이에 인쇄하거나 여백을 좁힌다든지, 작은 활자체를 쓰는 등 더 적은 면수에 더 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페이지 디자인을 하는 것 등이 있다. 재판 인쇄비용 때문에 초판 부수를 더 늘리거나 인쇄를 더 신속히 끝내는 방법 등을 계획하고 있다. ❖

# 출판저널

통권 제186호/1996년 2월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종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허연  
                  한동림 이정민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옥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딱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일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로 이채롭게 꾸며,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엮은 합철본을 새로 제작, 한층 자료가치를 높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 출판저널합본호판매안내

- 합본1호(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날권31~40호) 5,000원(판매)
- 합본5호(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 \* 구독의 불편·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서신등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료는 합본제작비로 인해 수취인 부담관계로 직접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

###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가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이력서  
2)자기소개서  
3)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20세기플러스  
a publishing Co.  
스위스그랜드 호텔 앞  
☎(02)395-1945 ☎(02)396-3964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9-2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132호  
☎110-611

#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 1년분(22호분)  
30,000원
- \* 반년분(11호분)  
16,000원